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8년 1/4분기 미국(2.2%), 중국(1.4%), 일본(-0.6%), 유로지역(1.6%)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함
 - 미국은 민간소비 감소, 일본은 주택투자와 설비투자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유로지역은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둔화 및 수출 감소, 이상 기후, 파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2018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미국, 유로지역, 중국 등 주요국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으로 소폭 하락한 100.0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무역규모 증가율은 선진국과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4.4%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다소 하락한 3.6%를 기록함

- 2018년 1/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상승함
 - 미국의 국채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유로지역의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함
 - 국제유가(두바이 65.0달러/배럴, WTI 63.8달러/배럴)와 원자재 가격(CRB 상품지수 195.0)은 모두 상승함

■ 2018년 1/4분기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하락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감소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한 2.2%(연율)를 기록함
(〈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4%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주택투자와 설비투자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1.2%p 하락한 -0.6%(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둔화 및 수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1.1%p 하락한 1.6%(연율)를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¹⁾	3.2	3.8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7	2.3	n.a.	2.1		2.3		2.8		n.a.
신흥국 ¹⁾	4.4	4.8	n.a.	4.2		5.3		5.3		n.a.
미국 ²⁾	1.5	2.3	2.2	2.8	1.8	1.2	3.1	3.2	2.9	2.2
중국 ³⁾	6.7	6.9	2.0	1.8	1.6	1.5	1.8	1.8	1.6	1.4
일본 ⁴⁾	1.0	1.7	1.1	0.7	0.9	2.6	2.0	2.0	0.6	-0.6
유로지역 ⁵⁾	1.8	2.4	1.4	1.7	2.6	2.6	2.9	2.8	2.7	1.6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 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 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5)

3) 중국 국가통계국(2018. 4)

4) 일본 내각부(2018. 5)

5) Eurostat(2018. 6)

■ 2018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미국과 유로지역, 중국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0.2 하락한 100.0을 기록함

- 미국은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100.4를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0로 4분기 연속 변화가 없음
- 유로지역과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전분기보다 0.1 하락하여 100.1과 98.9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²⁾	99.7	100.1	99.6	99.7	99.9	100.1	100.1	100.2	100.2	100.0
선진국 ³⁾	99.1	99.7	99.0	99.0	99.3	99.6	99.6	99.6	99.9	100.1
미국	100.0	100.4	99.9	99.9	100.0	100.1	100.3	100.5	100.6	100.4
유로지역	99.6	100.1	99.5	99.6	99.8	99.9	100.0	100.1	100.2	100.1
일본	99.6	100.0	99.5	99.6	99.8	99.9	100.0	100.0	100.0	100.0
중국	100.0	99.6	99.9	100.1	100.1	100.0	99.8	99.5	99.0	98.9

주: 1) 2007년 1월=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2018년 1/4분기 4.4%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감소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1%p 하락한 3.7%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5.4%로 전분기보다 0.4%p 하락함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1.5	4.5	1.9	1.3	2.2	4.1	4.4	5.1	4.7	4.4
선진국	1.6	3.8	1.6	1.7	1.8	2.5	3.6	4.1	4.8	3.7
신흥국	1.3	5.7	2.2	0.7	2.8	6.6	5.5	6.6	5.8	5.4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전분기보다 0.3%p 하락하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동반 상승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3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4.8%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 가격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가격은 전분기보다 각각 3.9, 6.4달러 상승한 배럴당 65.0, 63.8달러이고, CRB 상품지수²⁾는 7.8 상승하여 195.0을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2017				2018		2017				2018
	연간	2/4	3/4	4/4	1/4		연간	2/4	3/4	4/4	1/4
세계	3.9	3.8	3.7	3.9	3.6	두바이 현물 가격 ²⁾	53.7	48.8	52.2	61.1	65.0
선진국	1.7	1.6	1.7	1.7	1.7	WTI 현물 가격 ²⁾	51.9	47.9	49.7	57.4	63.8
신흥국	5.3	5.3	5.1	5.2	4.8	CRB 상품지수 ³⁾	184.0	179.5	179.4	187.2	195.0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2) 단위: 달러/배럴

3) 1967=100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8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2.2%를 기록함
 - 민간소비(1.0%)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대폭 하락하고 민간투자(7.2%)는 전분기 대비 다소 증가함
 - 수출 증가율(4.2%)과 수입 증가율(2.8%)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8년 1/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0.4%)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지만 소비자신뢰지수(127.1)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0.6%)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설비가동률(77.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9.7), 경기선행지수(108.4)는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실업률(4.1%)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취업자 수(65만 5천 명)는 전분기보다 감소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은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2.9%)은 다소 하락함
- 2018년 3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1/4분기 국채금리(3년물 2.30%, 10년물 2.75%)는 전분기보다 다소 상승함

〈경제성장〉

- 2018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2.2%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 내구재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3.0%p 감소하여 2013년 2/4분기 이후 최저치인 1.0%를 기록함³⁾
 -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5%p 상승한 7.2%를 나타냄
 - 수출입 증가율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8%p,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3%p 하락함

3) 남경옥(2018. 4. 28), “미국 '18년 1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9%p 하락한 1.1%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1.5	2.3	2.2	2.8	1.8	1.2	3.1	3.2	2.9	2.2
민간소비	2.7	2.8	3.8	2.8	2.9	1.9	3.3	2.2	4.0	1.0
재화	3.7	3.9	6.0	3.2	4.7	0.7	5.4	4.5	7.8	-0.6
서비스	2.3	2.2	2.8	2.7	2.1	2.5	2.3	1.1	2.3	1.8
민간투자	-1.6	3.3	-2.7	2.4	8.5	-1.2	3.9	7.3	4.7	7.2
설비	-0.6	4.7	3.3	3.4	0.2	7.2	6.7	4.7	6.8	9.2
주택	5.5	1.8	-4.7	-4.5	7.1	11.1	-7.3	-4.7	12.8	-2.0
수출	-0.3	3.4	2.8	6.4	-3.8	7.3	3.5	2.1	7.0	4.2
수입	1.3	4.0	0.4	2.7	8.1	4.3	1.5	-0.7	14.1	2.8
정부지출	0.8	0.1	-0.9	0.5	0.2	-0.6	-0.2	0.7	3.0	1.1

주: 전분기 대비 연율화한 수치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5), BEA

〈소비부문〉

■ 2018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9%p 하락한 0.4%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 대비 1.1 상승한 127.1을 기록함

■ 2018년 1/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7%p 하락한 4.8%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2.6 상승한 206.7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2.9	4.6	0.9	1.0	1.5	0.6	1.0	2.3	0.4	0.4	0.8
소비자신뢰지수 ²⁾	99.8	120.5	100.7	107.8	117.5	118.1	120.3	126.0	127.1	125.6	128.0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6.3	2.6	-1.1	8.9	-1.7	-4.9	0.1	7.5	4.8	-3.1	5.0
주택가격지수 ⁴⁾	188.7	199.8	191.3	191.9	193.9	198.9	202.6	204.1	206.7	210.2	n.a.

주: 1) 계절조정,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8년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고 설비가동률, 제조업 구매자관리 지수(PMI),⁴⁾ 경기선행지수는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0.6%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77.2%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 대비 1.0 상승한 59.7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2.0 상승한 108.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1.9	1.6	0.3	0.2	0.2	1.2	-0.4	1.9	0.6	0.9	-0.1
설비가동률 ²⁾ (%)	75.3	76.1	75.2	75.3	75.4	76.2	75.8	77.1	77.2	78.0	77.9
ISM제조업PMI	51.4	57.4	51.4	53.2	56.6	55.8	58.7	58.7	59.7	57.3	58.7
경기선행지수 ³⁾	100.0	104.1	100.3	100.8	102.2	103.3	104.4	106.4	108.4	109.3	109.5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2007=100

3) 2016=100

자료: Bloomberg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 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

■ 2018년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실업률은 4.1%를 기록하여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며, 포괄적 실업률은 8.1%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함
- 비농업취업자는 65만 5,000명으로 전분기보다 7,000명 감소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2만 8,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만 1,000명 감소함

■ 2018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승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 소비자물가는 모두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하여 각각 2.2%, 1.9%임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분기 대비 0.5%p 하락하였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9%로 0.1%p 하락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¹⁾	4.9	4.4	4.9	4.7	4.7	4.3	4.3	4.1	4.1	3.9	3.8
포괄적 실업률(u-6) ²⁾	9.6	8.5	9.7	9.3	9.1	8.5	8.5	8.0	8.1	7.8	7.6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234.4	218.8	76.4	49.2	53.2	56.9	42.5	66.2	65.5	15.9	22.3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26.3	24.4	25.6	25.3	24.7	24.3	24.6	23.9	22.8	22.2	22.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3	2.1	1.1	1.8	2.5	1.9	1.9	2.1	2.2	2.5	2.8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2.2	1.9	2.2	2.1	2.2	1.8	1.7	1.8	1.9	2.1	2.2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0	3.2	-1.3	1.0	3.5	3.0	2.8	3.4	2.9	2.4	4.1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5	1.8	1.3	1.6	1.7	1.9	1.8	2.0	1.9	1.9	2.2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3) 전분기 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 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Bloomberg

〈국채금리〉

- 2018년 1/4분기 국채금리(3년물 2.30%, 10년물 2.75%)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49bp 상승한 2.30%,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38bp 상승한 2.75%임
 - 2018년 3월 FOMC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였으며 물가상승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금리인상을 3회로 예상함⁵⁾
 - FOMC가 실업률 하락세와 물가상승세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금리전망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음⁶⁾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국채 3년물	1.00	1.57	0.84	1.23	1.51	1.46	1.50	1.81	2.30	2.52	2.66
국채 10년물	1.84	2.33	1.56	2.13	2.44	2.26	2.24	2.37	2.75	2.87	2.98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5) 김성택·김윤경·권도현·황재철(2018. 3. 22), “[3월 FOMC] 25bp 인상, 중장기 금리전망치 상향”, 국제금융센터
 6) 자본시장연구원(2018. 7), 『자본시장리뷰 2018년 여름호』

나. 중국경제

- 2018년 1/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 축소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4%를 기록함
- 2018년 1/4분기 중국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0.1%)과 소비자신뢰지수(122.9)는 전분기 대비 동반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6.0%)과 구매자관리지수(51.0)는 모두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은 상승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3.7%)은 하락함
- 2018년 1/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경제성장〉

- 2018년 1/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 축소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4%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증가율보다 0.5%p 상승한 7.7%를 기록함
 - 농업 및 부동산개발 투자 부문 증가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소폭 상승함⁷⁾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7.7%p 상승한 17.3%를 나타냄
 - 견조한 수출수요로 특히 대(對) ASEAN 수출이 대폭 증가함⁸⁾
 - 수입 증가율은 19.2%로 전분기 대비 6.1%p 상승함
 -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감소함

7) 이상원·이치훈(2018. 4. 17), “18. 1Q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8) 이상원·이치훈(2018. 4. 17), “18. 1Q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¹⁾	6.7	6.9	2.0 (6.7)	1.8 (6.7)	1.6 (6.8)	1.5 (6.9)	1.8 (6.9)	1.8 (6.8)	1.6 (6.8)	1.4 (6.8)
고정자산투자 ²⁾	9.0	8.1	9.7	8.1	8.2	9.1	8.7	7.9	7.2	7.7
수출 증가율 ⁴⁾	-7.6	7.7	-6.3	-6.9	-5.2	6.5	8.1	6.4	9.6	17.3
수입 증가율 ⁴⁾	-5.6	16.7	-6.9	-4.1	2.3	25.3	14.1	14.4	13.1	19.2

주: 1) 전분기 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2월 누적치
 4)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8. 4); Bloomberg

〈소비부문〉

■ 2018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10.1%를 나타냄
 - 온라인 판매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소매판매를 견인함⁹⁾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122.9를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0.4	10.4	10.5	10.6	10.9	10.8	10.3	9.9	10.1	9.4	8.5
소비자신뢰지수	104.4	116.3	105.7	108.1	112.0	114.8	116.0	122.6	122.9	122.9	n.a.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9) 이상원·이치훈(2018. 4. 17), “18. 1Q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생산부문〉

- 2018년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동반 하락함
 - 전년동기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6.0%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1.0로 전분기보다 0.7 하락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가 2018년 2월, 1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1/4분기 평균이 하락하였으나 분기 말 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등함¹⁰⁾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6.2	6.6	6.1	6.1	7.6	6.9	6.3	6.2	6.0	7.0	6.8
제조업PMI ²⁾	50.3	51.6	50.2	51.4	51.6	51.4	51.8	51.7	51.0	51.4	51.9

주: 1)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 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¹¹⁾ 및 물가〉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품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4%p 상승한 2.2%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분기보다 2.2%p 하락한 3.7%를 기록함

10) 이상원·이치훈(2018. 4. 17), “18. 1Q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11)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6	1.7	2.2	1.4	1.4	1.6	1.8	2.2	1.8	1.8
생산자물가 상승률	-1.3	6.3	-0.8	3.3	7.4	5.8	6.2	5.9	3.7	3.4	4.1

주: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국채금리 및 환율〉

■ 2018년 1/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0bp 상승한 4.15%, 국채 10년물 금리는 25bp 상승한 4.33%임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3.84% 하락한 6.359위안/달러임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4월(6.299)에는 2년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함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국채 3년물	3.34	4.01	2.86	3.25	4.16	4.16	3.76	3.95	4.15	4.00	3.90
국채 10년물	3.56	4.22	3.24	3.48	4.25	4.50	4.06	4.08	4.33	4.27	4.15
위안/달러	6.644	6.758	6.667	6.833	6.889	6.862	6.671	6.613	6.359	6.299	6.369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8년 1/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투자와 수출 및 수입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1.2%p 하락한 -0.6%를 기록함
- 2018년 1/4분기 일본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1.3%)은 전분기 대비 대폭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0.6%)과 소비자신뢰지수(44.4)는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전년동기 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8.2%)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민간기계 수주액 증가율(3.3%)은 상승함
 - 실업률(2.5%)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1.59배)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은 전분기보다 대폭 상승함
- 2018년 1/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1%, 10년물 0.06%)는 소폭 상승함

〈경제성장〉

- 2018년 1/4분기 일본의 계절조정 경제성장률은 주택 및 설비투자 감소와 수출 및 수입 둔화로 전분기 대비 1.2%p 하락한 -0.6%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0.0%를 기록함
 - 임금 및 고용여건 개선에도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신선 식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 또한 약화됨¹²⁾
 - 설비투자 증가율은 -0.1%로,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함
 -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시설수요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출하 부진 등으로 감소함¹³⁾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한 -2.1%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4%p 상승한 0.0%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0.6%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8%p 하락한 0.3%를 기록함

12) 손영환(2018. 2. 14), “일본 '18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연율 -0.6%)”, 국제금융센터

13) 손영환(2018. 2. 14), “일본 '18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연율 -0.6%)”, 국제금융센터

- 세계적인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IT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수입 또한 전자 기기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¹⁴⁾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0%로 3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함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1.0	1.7	0.3 (1.1)	0.2 (0.7)	0.3 (0.9)	0.7 (2.6)	0.5 (2.0)	0.5 (2.0)	0.1 (0.6)	-0.2 (-0.6)
민간소비	0.1	1.0	-0.3	0.4	0.0	0.5	0.7	-0.7	0.2	0.0
설비투자	0.6	2.9	0.4	-0.4	1.5	0.6	0.8	1.0	0.6	-0.1
주택투자	5.7	2.7	2.2	2.5	0.8	1.2	0.9	-1.6	-2.7	-2.1
공공투자	-0.1	1.2	2.4	0.2	-1.9	0.0	4.7	-2.6	-0.4	0.0
수출	1.7	6.7	-0.6	2.2	2.7	2.1	-0.1	2.0	2.2	0.6
수입	-1.6	3.4	-0.9	0.1	0.8	1.6	1.8	-1.3	3.1	0.3
정부지출	1.3	0.2	-1.2	0.4	-0.2	0.2	0.2	0.0	0.0	0.0

주: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8. 5)

〈소비 및 생산부문〉

- 2018년 1/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1.3%로, 전분기보다 2.9%p 하락함
- 2018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동반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9%p 하락한 -0.6%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44.4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함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하락하고,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5.7%p 하락한 -8.2%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0%p 상승한 3.3%를 기록함

14) 손영환(2018. 2. 14), “일본 '18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연율 -0.6%)”, 국제금융센터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0.2	4.5	1.6	1.9	0.2	1.8	0.4	1.6	-1.3	0.5	n.a.
소매판매 증가율 ²⁾	-0.6	1.9	0.5	1.5	-0.2	0.6	0.1	1.3	-0.6	1.3	-1.7
소비자신뢰지수 ³⁾	41.7	43.8	42.2	42.0	43.4	43.4	43.8	44.5	44.4	43.6	43.8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6.4	-0.3	7.1	7.9	3.2	1.1	-2.4	-2.5	-8.2	0.3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1.7	-1.1	3.9	0.4	-1.2	-3.4	2.8	0.3	3.3	n.a.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 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 대비,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8년 1/4분기 전분기 대비 실업률은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¹⁵⁾은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2.5%를 기록함
- 유효구인배율은 1.59배로 전분기 대비 높아지며 상승세를 지속함

■ 2018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함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2%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3.1	2.8	3.0	3.1	2.9	2.9	2.8	2.7	2.5	2.5	n.a.
유효구인배율 ¹⁾	1.36	1.50	1.37	1.41	1.44	1.49	1.52	1.57	1.59	1.59	n.a.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0.1	0.5	-0.5	0.3	0.3	0.4	0.6	0.6	1.3	0.6	0.7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0.3	-0.1	0.2	0.1	-0.1	-0.2	0.0	0.1	0.2	0.1	0.1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2015=100,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15) 유효구인배율 = 구인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8년 1/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기존 통화정책¹⁶⁾ 유지에 따라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 일본은행(BOJ)은 2018년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¹⁷⁾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bp 상승한 -0.11%,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보다 1bp 상승한 0.06%임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국채 3년물	-0.20	-0.14	-0.24	-0.19	-0.18	-0.15	-0.11	-0.13	-0.11	-0.12	-0.12
국채 10년물	-0.04	0.06	-0.12	0.00	0.08	0.04	0.05	0.05	0.06	0.05	0.05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6)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대로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임
 17) 손영환(2018. 4. 27), "BOJ: 물가목표 달성시기 삭제", 국제금융센터

라. 유로지역¹⁸⁾경제

- 2018년 1/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0.4%를 기록함
- 2018년 1/4분기 유로지역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14.1)와 산업생산 증가율(-0.6%)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유로지역 전년동기 대비 실업률은 주요국(5.6%), 북유럽(5.8%), 동유럽(5.0%), 남유럽(13.9%) 국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주요국(1.9%)과 남유럽(0.8%) 국가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북유럽(1.3%)과 동유럽(2.1%)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승함
- 2018년 1/4분기 유로지역 주요국 평균 국채금리(독일 3년물 -0.41%, 독일 10년물 0.62%, 영국 3년물 0.77%, 영국 10년물 1.45%)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8년 1/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스페인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0.4%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스페인은 0.7%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독일과 영국은 0.3%p 하락하여 각각 0.3%, 0.1%를 기록하였고 프랑스는 0.5%p 하락한 0.2%, 이탈리아는 0.1%p 하락한 0.3%를 나타냄
 - 이상 기후, 파업, 계절적 독감 발생 등 일시적 영향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¹⁹⁾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0.5%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8%p 하락한 0.5%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6%p 하락한 -0.4%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 대비 1.6%p 하락한 -0.1%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3%p 하락한 0.0%를 기록함

18)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19) ECB(2018. 6), *Eurosystem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Euro Area*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1.8	2.4	0.4 (1.4)	0.4 (1.7)	0.6 (2.6)	0.6 (2.6)	0.7 (2.9)	0.7 (2.8)	0.7 (2.7)	0.4 (1.6)
민간소비	2.0	1.7	0.3	0.3	0.6	0.5	0.5	0.3	0.2	0.5
고정자본투자	4.6	2.9	2.6	0.6	0.9	0.1	2.0	-0.3	1.3	0.5
수출	3.4	5.1	1.3	0.4	1.5	1.6	1.1	1.5	2.2	-0.4
수입	4.8	4.3	1.9	0.5	1.6	0.6	1.6	0.5	1.5	-0.1
정부지출	1.8	1.2	0.3	0.2	0.3	0.2	0.4	0.4	0.3	0.0

주: 1)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8. 6)

〈소비 및 생산부문〉

■ 2018년 1/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14.1으로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0.2%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0.5로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8년 1/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9%p 하락한 -0.6%를 나타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유로 지역 ESI ²⁾	104.1	110.7	103.4	106.0	107.3	109.5	111.8	114.4	114.1	112.7	122.5
소매판매 증가율 ³⁾ (%)	1.6	2.2	0.4	1.0	0.4	0.7	0.4	0.4	-0.2	0.1	n.a.
소비자신뢰지수 ⁴⁾	-7.8	-2.5	-8.3	-6.6	-5.5	-2.7	-1.5	-0.2	0.5	0.3	0.2
산업생산 증가율 ⁵⁾ (%)	1.7	2.9	0.3	1.4	0.1	0.7	1.9	1.3	-0.6	-0.9	n.a.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 40%, 서비스업 30%, 소비자신뢰 20%, 건설업 5%, 소매거래 5%임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²⁰⁾〉

- 2018년 1/4분기 유로 지역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전분기보다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5.6%를 기록함
 - 북유럽의 실업률(5.8%)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하였고 동유럽의 실업률(5.0%)은 0.3%p, 남유럽의 실업률(13.9%)은 0.3%p 하락함
- 2018년 1/4분기 주요국과 남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북유럽과 동유럽은 소폭 상승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증가세 약화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9%를 기록함²¹⁾
 - 북유럽과 동유럽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1%p 상승한 1.3%, 2.1%이고, 남유럽은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0.8%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7년 3/4	5.8	6.3	5.7	14.4	1.8	1.5	1.6	1.3
2017년 4/4	5.6	6.1	5.3	14.2	2.0	1.2	2.0	1.3
2018년 1/4	5.6	5.8	5.0	13.9	1.9	1.3	2.1	0.8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 대비

자료: Eurostat(2018. 5)

20)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21) 자본시장연구원(2018. 7), 『자본시장리뷰 2018년 여름호』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독일	실질 GDP	1.9	2.2	0.5	0.3	0.4	0.9	0.6	0.7	0.6	0.3
	민간소비	2.1	1.8	0.1	0.5	0.7	0.5	0.8	0.0	0.1	0.4
	고정자본투자	3.1	3.3	-1.2	0.5	0.0	2.6	1.5	0.4	0.3	1.7
	수출	2.6	4.6	1.3	-0.2	1.3	1.6	1.1	1.7	2.6	-1.0
	수입	3.9	5.2	-0.2	0.7	2.5	0.5	2.4	1.0	1.8	-1.1
프랑스	실질 GDP	1.2	2.2	-0.2	0.2	0.6	0.8	0.7	0.7	0.7	0.2
	민간소비	2.1	1.0	0.5	-0.1	0.7	0.0	0.3	0.5	0.2	0.1
	고정자본투자	2.8	4.5	0.0	0.4	0.9	2.2	0.9	1.3	0.9	0.2
	수출	1.5	4.5	-0.4	0.9	1.5	0.0	2.8	0.8	2.3	-0.3
	수입	3.0	4.0	-1.1	2.3	0.6	1.9	-0.1	1.8	0.1	-0.3
이탈리아	실질 GDP	0.9	1.5	0.1	0.2	0.5	0.5	0.4	0.3	0.4	0.3
	민간소비	1.4	1.4	0.2	0.3	0.3	0.7	0.1	0.3	0.0	0.4
	고정자본투자	3.2	3.8	-0.1	2.0	2.6	-1.9	1.4	2.9	1.5	-1.4
	수출	2.4	5.4	1.7	0.7	1.7	2.5	-0.1	1.8	1.8	-2.1
	수입	3.5	5.3	1.9	0.8	1.8	1.3	1.6	1.4	0.5	-0.9
스페인	실질 GDP	3.3	3.1	0.8	0.7	0.7	0.8	0.9	0.7	0.7	0.7
	민간소비	3.0	2.4	0.6	0.8	0.4	0.4	0.8	0.7	0.6	0.7
	고정자본투자	3.3	5.0	1.6	-0.3	0.8	2.8	0.6	1.4	0.7	0.8
	수출	4.8	5.0	2.1	-0.5	1.5	2.4	1.0	0.6	0.3	1.3
	수입	2.7	4.7	1.9	-1.7	0.6	3.7	0.5	1.0	0.0	1.3
영국	실질 GDP	1.9	1.8	0.5	0.5	0.7	0.3	0.2	0.5	0.4	0.1
	민간소비	2.9	1.7	1.0	0.8	0.3	0.4	0.3	0.3	0.3	0.2
	고정자본투자	1.8	4.0	2.0	1.1	0.7	0.7	1.7	0.5	1.1	0.9
	수출	2.3	5.7	2.8	-1.8	5.2	-0.2	1.9	1.8	-0.9	-0.5
	수입	4.8	3.2	1.0	3.3	-1.0	0.9	0.6	1.2	0.4	-0.6

주: 전분기 대비
 자료: Eurostat(2018. 6)

〈국채금리〉

■ 2018년 1/4분기 영국과 독일의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1bp 상승한 -0.41%,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4bp 상승한 0.62%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5bp 상승한 0.77%,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7bp 상승한 1.45%임
 - 2018년 1월 유럽 중앙은행(ECB)은 자산구매프로그램 계획을 월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감소시켰고, 프로그램은 2018년 9월 말까지 시행하나 경기 전망이 악화될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²²⁾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독일국채 3년물	-0.58	-0.64	-0.66	-0.68	-0.71	-0.67	-0.57	-0.62	-0.41	-0.43	-0.47
독일국채 10년물	0.14	0.37	-0.07	0.19	0.36	0.31	0.45	0.38	0.62	0.54	0.52
영국국채 3년물	0.39	0.32	0.16	0.23	0.22	0.21	0.34	0.52	0.77	0.90	0.82
영국국채 10년물	1.22	1.20	0.72	1.25	1.28	1.06	1.18	1.28	1.45	1.44	1.42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2)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 국내경제

- 201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8%, 전분기 대비 1.0%를 기록함
 -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함
- 2018년 1/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심리 개선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설비투자는 3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건설투자도 토목부문 감소세가 이어지며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자동차 수출 회복 지연, 기계장비 부진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
 - 총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참여 위축 등으로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고용률과 실업률도 전분기보다 악화됨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상승폭이 축소되어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 GM 군산 공장 폐쇄 및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전분기보다 하락함
 -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입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소폭 축소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8년 1/4분기 경기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하며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남
- 2018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투자 부진 및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경기 회복이 제한적임

가. 경제성장

- 2018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건설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반도체, 기계 등의 수출 증가 지속으로²³⁾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함(〈표 25〉 참조)
 -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함(〈표 26〉 참조)
 -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건설투자의 증가세도 둔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에 그침(〈표 26〉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R&D 및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기계 등의 재화수출과 비거주자 국내소비 등의 서비스수출이 늘어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하였고, 수입은 천연가스, 기계류 등 재화수입이 늘어²⁴⁾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함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3.4 (0.9)	2.6 (0.5)	2.4 (0.5)	2.8	2.9 (1.0)	2.8 (0.6)	3.8 (1.4)	2.8 (-0.2)	3.1	2.8 (1.0)
민간소비	3.5	2.7	1.5	2.5	2.1	2.4	2.6	3.4	2.6	3.5
설비투자	-2.9	-3.9	2.0	-2.3	16.1	17.9	16.3	8.6	14.6	7.3
건설투자	10.6	11.2	11.6	10.7	11.3	8.5	8.0	3.8	7.6	1.8
지식생산물투자	2.7	2.7	2.6	2.3	3.2	2.2	2.9	3.5	3.0	3.5
수출	2.6	3.4	1.2	2.1	3.7	0.3	4.4	-0.6	1.9	1.6
수입	4.8	6.5	3.3	4.5	10.1	6.6	7.4	4.1	7.0	4.2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23) 한국은행(2018. 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4)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6. 1), “2018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5.0%로 전분기보다 2.9%p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임

- 2018년 1/4분기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8.8% 증가함
 - 4월에는 잦은 강우와 미세먼지로 가전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5월에는 국산차 출시 효과 약화와 수입차 전월 판매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각각 전월동월 대비 10.0%, 5.4%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준내구재 판매는 의복 및 신발·가방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하였고 비내구재 판매는 화장품,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함
 - 4월에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4.6%)와 준내구재(2.3%) 판매가 모두 늘었으며, 5월에도 의복 등 준내구재(7.5%), 비내구재(3.1%) 판매가 늘어남

〈표 25〉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연간	2018		
	연간	1/4	2/4	3/4	4/4		1/4 ²⁾	4월 ²⁾	5월 ²⁾
민간소비	2.5	2.1	2.4	2.6	3.4	2.6	3.5	-	-
소매판매	4.3	1.6	1.0	3.2	2.1	1.9	5.0	5.5	4.6
내구재	4.5	3.4	3.8	12.0	2.3	5.4	8.8	10.0	5.4
* 승용차	2.5	2.8	-5.6	16.1	-5.9	0.9	8.5	16.0	10.5
준내구재	2.5	-1.8	-2.3	-0.8	0.6	-1.1	4.8	2.3	7.5
비내구재	4.8	2.2	1.1	0.9	2.8	1.7	3.4	4.6	3.1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은 7.3%로 3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됨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10.4%)와 운송장비(6.4%)가 모두 증가하며 9.4% 상승하였으나 4월과 5월에 다시 하락함

- 4월 설비투자지수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6.4%)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4.2%) 투자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3% 상승함

- 5월 설비투자지수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2.2%)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6.3%)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4.1% 하락함

○ 2018년 1/4분기에는 제조업 평균가동률²⁵⁾이 하락세를 보이고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²⁶⁾(4.4%)의 증가폭도 축소되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4월과 5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 그리고 자동차 등 민간에서 모두 증가하여 각각 전년동월 대비 5.9%, 6.7% 증가함²⁷⁾

〈표 26〉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설비투자	-2.3	16.1	17.9	16.4	8.6	14.6	7.3	-	-
설비투자지수	-1.3	18.2	17.8	20.6	2.0	14.1	9.4	1.3	-4.1
기계류	-2.2	24.8	34.5	25.5	7.4	22.4	10.4	4.2	-6.3
운송장비	0.9	2.6	-13.5	8.4	-10.8	-4.4	6.4	-6.4	2.2
국내기계수주 ³⁾	3.8	21.1	23.7	31.3	4.2	19.2	4.4	5.9	6.7
건설투자	10.7	11.3	8.5	8.0	3.8	7.6	1.8	-	-
건설기성(불변)	15.4	17.7	13.6	12.7	-0.5	10.1	1.5	1.5	0.0
건축	25.7	26.6	22.9	21.7	5.6	18.2	3.5	3.1	1.0
토목	-2.6	-1.1	-6.9	-8.9	-14.8	-8.4	-3.7	-3.6	-2.9
국내건설수주(경상)	8.4	1.2	17.9	-10.2	-15.0	-3.1	3.6	-37.2	5.6
건축	14.5	-7.7	8.4	-8.3	-15.5	-6.5	-0.5	-28.3	-5.3
토목	-9.4	29.7	63.3	-17.3	-13.0	9.7	13.0	-65.8	40.6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5) 제조업 평균가동률(%): ('17. 1/4) 73.5 → (2/4) 72.0 → (3/4) 73.0 → (4/4) 71.8 → ('18. 1/4) 71.0

26)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7) 통계청 보도자료(2018. 5. 31),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8. 6. 29),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 2018년 1/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축부문도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에 그침

- 건설기성(불변)²⁸⁾은 건축(3.5%) 공사 실적 증가에도 토목(-3.7%) 공사 실적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에 그쳤으며, 이러한 둔화세는 4, 5월에도 지속됨
 - 4월과 5월 건설기성은 신규주택 수주 둔화에 따른 주거용 건축 부진²⁹⁾으로 건축 공사 실적의 증가세가 축소되고 토목 공사 실적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각각 전년동월 대비 1.5%, 0.0%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1월 대규모 화력발전소 수주로 인한³⁰⁾ 일시적인 토목부문(13.0%)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함
 - 4월 국내건설수주는 주택·사무실·점포 등의 건축부문(-28.3%)과 도로·교량 등의 토목부문(-65.8%)³¹⁾에서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37.2% 감소함
 - 5월 국내건설수주는 주택 등의 건축부문(-5.3%)에서 감소하였으나, 도로·교량, 기계설치 등의 토목부문(40.6%)³²⁾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5.6% 증가함

〈산업생산〉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2.2%로 전분기보다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4, 5월에도 지속됨

- 2018년 1/4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 회복 지연, 조선 등 전방산업 수요 위축에 따른 기계장비 부진³³⁾ 등의 영향³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함
 - 4월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³⁵⁾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함

28)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 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5. 31), “18. 4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6. 29), “18.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0) 한국개발연구원(2018), 『KDI 경제전망 - 2018년 상반기』

31) 통계청 보도자료(2018. 5. 31), “18. 4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2) 통계청 보도자료(2018. 6. 29), “18.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3) 기계장비 생산 증가율(전월비, %): ('18. 1월) 3.6, (2월) 0.4, (3월) -4.3

3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4. 29), “18. 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5월 광공업 생산은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통신·방송장비가 증가하고 완성차 수출 증가³⁶⁾로 인한 자동차(-0.2%) 감소폭 축소로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2.2%) 및 금융·보험업(7.7%)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함
-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1.7%)의 감소세가 축소되고 주식거래 증가³⁷⁾ 등으로 금융 및 보험업(8.5%)이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2.7% 증가함
- 5월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6.8%)과 운수업(4.2%)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2.3% 증가함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전산업 생산 ³⁾	3.0	3.9	2.5	3.9	-0.7	2.3	0.7	2.0	1.7
광공업	1.0	4.7	2.2	4.6	-3.8	1.9	-2.2	0.8	0.9
제조업	1.0	4.8	1.9	4.6	-4.8	1.6	-2.8	0.6	0.8
자동차	-2.8	-0.5	-1.1	11.7	-17.9	-2.9	-10.5	-5.4	-0.2
ICT	5.0	11.4	0.1	1.6	2.3	3.6	1.9	11.8	6.9
서비스업	3.0	2.2	1.7	2.5	0.9	1.9	2.6	2.7	2.3
도매 및 소매업	3.0	0.9	0.1	2.2	-0.2	0.7	2.2	1.1	2.2
운수업	1.9	0.5	0.9	2.8	1.9	1.6	1.0	4.4	4.2
숙박 및 음식점업	-0.5	-1.0	-1.6	-2.4	-2.5	-1.9	-3.3	-1.7	-1.9
금융 및 보험업	5.9	4.8	4.9	4.5	6.3	5.1	7.7	8.5	6.8
부동산 및 임대업	2.3	3.3	2.5	3.7	-4.6	1.2	2.0	0.7	-1.1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5. 31), “18. 4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6. 29), “18.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7)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조 원): ('17. 12월) 12.1, ('18. 1월) 15.8, (2월) 13.0, (3월) 12.4, (4월) 14.3

〈고용 및 물가〉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0.7%를 기록하였고 고용률과 실업률도 전분기보다 악화됨
 - 2018년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지연 및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한파 등³⁸⁾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에 그침
 - 4월 총취업자 수는 전년도 기저효과³⁹⁾ 및 제조업 고용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증가에 그침
 - 5월 총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확대⁴⁰⁾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구조조정, 중국 관광객 회복세 지연⁴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에 그침
 - 2018년 1/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보다 1.4%p 하락한 59.6%를 기록하였으나, 4월에는 60.9%, 5월에는 61.3%로 점진적으로 개선됨
 - 4월과 5월 고용률은 공무원시험 일정 조정⁴²⁾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및 청년 취업자 수 감소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0.1%p, 0.2%p 하락한 60.9%, 61.3%를 기록함
 - 2018년 1/4분기 실업률은 구직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1%p 상승한 4.3%를 기록하였으나, 4월과 5월에는 각각 4.1%, 4.0%로 다소 하락함
 - 청년실업률은 졸업, 공무원, 기업 채용시험에 따른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0%p 상승한 10.0%를 기록하였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10.7%, 10.5%로 상승함
- 2018년 1/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5.3%)과 광공업(1.0%)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OC 및 기타서비스업(0.4%)은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이 누적되어 증가세가 둔화됨

38) 한국은행(2018. 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9) 취업자 수(전년동기 대비): ('17. 4월) 42만 명 → ('18. 4월) 12.3만 명

40) 생산가능인구 수(만 명, 전년 대비): ('16) 13.4 → ('17) 2.1 → ('18. 1/4) -4.7 → (4월) -6.6 → (5월) -7.8

41) 통계청 보도자료(2018. 6. 15), "18. 5월 고용동향"

42)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은 2017년 3월 말에서 2018년 3월 초, 2017년 6월 17일에서 2018년 5월 19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수가 증가함(시험종료 후 시험 응시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광공업 취업자 수는 제조업의 수출,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반도체 및 전자부품업 고용 증가에 의해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함
 - 4월과 5월에는 제조업 구조조정 및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주력산업 부진⁴³⁾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1.5%, 1.8% 감소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의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및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고용부진이 이어져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에 그침
 - 특히, 건설업(3.6%)의 경우 2월 한파·폭설로 인한 작업 차질과 주택 준공물량 축소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됨
 - 4월과 5월에는 주택 준공물량 축소⁴⁴⁾로 건설업 고용이 둔화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⁴⁵⁾가 감소세를 지속하며 각각 전년동월 대비 0.7%, 0.4% 증가에 그침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¹⁾	1.2	1.4	1.4	1.0	1.0	1.2	0.7	0.5	0.3
청년취업자 ¹⁾	1.2	0.4	0.8	-0.2	-1.1	0.0	0.7	-1.7	-2.4
고용률 ²⁾	60.4	59.6	61.3	61.4	61.0	60.8	59.6	60.9	61.3
실업률 ³⁾	3.7	4.3	3.8	3.4	3.2	3.7	4.3	4.1	4.0
청년 ⁴⁾ 실업률 ³⁾	9.8	10.7	10.3	9.3	9.0	9.8	10.0	10.7	10.5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4.4	-2.5	0.1	1.5	2.2	0.5	5.3	4.0	4.3
광공업	0.0	-2.5	-0.4	0.8	0.9	-0.3	1.0	-1.5	-1.8
제조업	-0.1	-2.6	-0.4	0.7	0.9	-0.4	1.0	-1.5	-1.7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8	2.5	1.9	1.1	0.9	1.6	0.4	0.7	0.4
건설업	1.2	7.6	8.8	4.4	4.7	6.4	3.6	1.7	0.2
도·소매, 음식, 숙박	0.7	2.1	0.8	-0.2	-0.2	0.6	-1.6	-1.5	-1.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7	-0.6	-1.3	-1.8	-0.9	-1.1	0.6	3.1	3.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9	2.7	2.2	2.1	1.5	2.1	1.8	1.0	0.8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4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5. 16), “'18. 4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6. 15), “'18. 5월 고용동향”

44) 주택 준공물량: ('18. 1월) 6.0만 호 → ('18. 2월) 5.2만 호 → (3월) 4.2만 호 → (4월) 4.2만 호

4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전년동기 대비, 만 명): ('18. 1월) -5.8, (2월) -10.6, (3월) -10.3, (4월) -4.8, (5월) -3.5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6%, 1.5% 상승함

- 2018년 1/4분기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0.8% 상승에 그쳤으나,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6%, 1.4% 상승함
 - 농축수산물(1.7%)은 채소류 가격 안정,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공업제품(0.9%)은 국제유가가 보험인 가운데 환율 하락 등⁴⁶⁾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됨
 - 4월 상품물가(1.6%)는 봄 채소 출하 지연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공업제품(1.4%)은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저효과⁴⁷⁾로 상승폭이 확대됨
 - 5월 상품물가(1.4%)는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육 마리 수 증가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축수산물(2.7%)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전기·수도·가스(-3.3%)는 작년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⁴⁸⁾로 하락폭이 확대됨
- 2018년 1/4분기 서비스물가는 개인서비스가격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상승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6%, 1.7% 상승함

■ 2018년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 GM 군산공장 폐쇄 및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슈 등⁴⁹⁾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108.7을 기록함

- 4월에는 원화강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⁵⁰⁾을 미치며 전월보다 1.0 하락한 107.1을 기록함
- 5월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미·중 간 통상마찰 우려 완화에 따라 경제상황 인식이 개선⁵¹⁾되어 전월보다 0.8 상승한 107.9를 기록함

4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4), “최근경제동향”

4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5), “최근경제동향”

4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6), “최근경제동향”

49) 국회예산처(2018. 4), 『NABO 경제동향&이슈』

50) 국회예산처(2018. 5), 『NABO 경제동향&이슈』

51) 국회예산처(2018. 6), 『NABO 경제동향&이슈』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²⁾	99.1	94.3	106.4	109.3	110.5	105.1	108.7	107.1	107.9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1.0	2.1	1.9	2.3	1.5	1.9	1.3	1.6	1.5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6	2.0	1.8	2.9	1.0	1.9	0.8	1.6	1.4
농축수산물	3.8	6.1	6.1	8.4	1.4	5.5	1.7	4.1	2.7
공업제품	-0.5	2.1	1.3	0.9	1.5	1.4	0.9	1.4	1.6
전기·수도·가스	-9.2	-6.9	-2.4	8.0	-3.3	-1.4	-1.8	-2.5	-3.3
서비스	2.3	2.1	2.0	1.9	1.9	2.0	1.6	1.6	1.7
집세	1.9	1.7	1.8	1.6	1.4	1.6	1.1	0.8	0.7
공공서비스	1.5	1.0	1.0	1.0	0.8	1.0	0.5	0.3	0.1
개인서비스	2.7	2.7	2.5	2.3	2.5	2.5	2.3	2.5	2.6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대외거래〉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10.1%(1,45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반도체(45.9%)와 일반기계(9.4%) 수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원료 및 연료(12.3%)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4월 수출은 전년 조기 통관 및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⁵²⁾로 2016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1.5% 감소함

- 5월 수출은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 국제유가·주력품목 단가 상승, IT 경기 호황⁵³⁾이 이어지며 전년동월 대비 13.2% 증가함

5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5. 1), "2018년 4월 수출입 동향"

5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6. 1), "2018년 5월 수출입 동향"

■ 2018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수입 증가율은 13.6%(1,32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30억 8천만 달러로 소폭 축소됨

○ 가솔린·의약품 및 승용차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16.0%)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12.6%, 액화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이 13.6% 증가함⁵⁴⁾

- 4월, 5월 수입은 자본재 수입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비중이 큰 원자재 수입의 증가세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14.7%, 12.7% 증가함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8.0	9.5	4.8	8.8	1.4	5.9	5.1	4.6	26.1
	원료 및 연료	-16.4	58.5	15.2	28.6	26.3	30.7	12.3	44.8	32.2
	경공업 제품	0.2	1.9	-3.9	15.0	-6.8	1.5	2.9	5.4	10.9
	중화학 공업품	-5.7	12.8	18.8	24.6	8.4	16.0	10.5	5.4	11.4
	전체	-5.9	14.7	16.7	24.0	8.4	15.8	10.1	-1.5	13.2
	금액	4,954.3	1,320.6	1,470.5	1,510.5	1,435.4	5,737.0	1,453.6	500.9	508.4
수입	소비재	1.0	8.0	5.3	16.5	7.1	9.2	16.0	16.0	17.2
	원자재	-12.8	36.2	22.9	16.6	14.6	22.0	13.6	18.8	18.9
	자본재	-2.0	16.2	19.5	20.4	9.6	16.2	12.6	8.5	2.4
	전체	-6.9	24.1	18.6	17.9	11.6	17.8	13.6	14.7	12.7
	금액	4,061.9	1,164.3	1,178.0	1,208.5	1,234.0	4,784.8	1,322.8	435.2	442.9
무역수지	892.3	156.3	292.5	302.0	201.4	952.2	130.8	65.7	65.5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8년 1/4분기 지역별 수출은 대(對)미국, 대(對)중동을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 지역에서 모두 증가함

○ 수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인 대(對)아세안(6분기 연속)과 대(對)중국(5분기 연속)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對)아세안 수출이 역대 2위 실적(245.3억 달러)을 기록하였고 대(對)미국(-2.9%)은 자동차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대(對)중동(-10.8%)은 가전·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함

5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4. 1), “2019년 3월 수출입 동향”

- 4월 수출은 대(對)중국(23.1%)과 대(對)일본(17.7%)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대(對)EU(-21.2%)는 전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대(對)중남미(-3.7%)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5월 수출은 대(對)미국(11.8%)이 무선통신기기·차부품 등의 증가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대(對)아세안(-2.3%)은 베트남에 대한 일반기계·무선기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됨
- 수입의 경우, 중동지역이 원유 수입단가⁵⁵⁾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15.5% 증가하였고, EU(22.4%), 미국(20.3%) 등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함
- 4월과 5월 수입은 중국, 중동, EU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세를 이어감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7					연간	2018		
		1/4	2/4	3/4	4/4	1/4		4월	5월	
수출	중국	26.5	17.5	7.4	15.5	16.3	14.2	14.8	23.1	30.0
	ASEAN	11.0	31.5	27.1	33.4	20.2	27.8	12.9	2.4	-2.3
	미국	11.0	-2.1	0.0	19.5	-2.7	3.2	-2.9	-1.4	11.8
	EU	9.8	8.0	35.9	24.0	-2.0	15.9	16.1	-21.2	3.7
	중동	4.0	2.0	-4.8	0.7	-22.2	-7.0	-10.8	8.3	-6.3
	중남미	5.0	11.6	6.6	23.8	-0.1	10.5	5.6	-3.7	1.7
	일본	5.3	18.6	11.3	8.6	3.3	10.1	16.4	17.7	15.8
	전체	100.0	14.7	16.7	24.0	8.4	15.8	10.1	-1.5	13.2
수입	중국	19.0	15.6	14.0	12.6	8.5	12.5	7.5	10.2	14.6
	동남아	14.7	16.6	21.1	20.8	15.2	18.3	11.3	11.3	4.8
	중동	15.9	65.7	26.6	21.8	14.1	29.6	15.5	20.7	17.2
	EU	12.5	8.8	4.6	17.8	10.6	10.4	22.4	20.4	23.8
	일본	10.7	25.1	20.9	12.5	8.1	16.1	6.1	8.0	0.6
	미국	11.0	19.2	26.0	20.9	4.5	17.4	20.3	7.9	1.8
	호주	3.9	33.0	44.6	32.9	1.6	26.3	3.8	-4.8	-3.2
	전체	100.0	24.1	18.6	17.9	11.6	17.8	13.6	14.7	12.7

주: 1) 2018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55) 관세청 보도자료(2018. 4. 16), “2018년 3월 수출입 현황”

- 원유 수입단가(달러/배럴): (‘17. 12월) 63.9 → (‘18. 1월) 66.4 → (2월) 69.3 → (3월) 66.5

〈가계소득〉

- 2018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한 476만 3천 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고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함
-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인상과 1/4분기 상여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한 320만 5천 원을 기록함
- 사업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한 90만 5천 원, 재산소득은 3.4% 증가한 2만 2천 원, 이전소득은 근로장려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영향으로 19.2% 증가한 59만 원을 기록함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1/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39.9	459.3	434.7	453.7	444.5	476.3
	증가율	0.6	0.8	0.9	2.1	3.1	3.7
	실질 증가율 ²⁾	-0.4	-1.2	-1.0	-0.2	1.6	2.4
근로소득	금액	294.8	302.2	287.8	306.7	293.2	320.5
	증가율	1.0	0.0	0.5	1.6	0.9	6.1
사업소득	금액	85.9	85.6	89.1	91.6	94.3	90.5
	증가율	1.5	0.9	4.1	6.2	8.5	5.7
재산소득	금액	1.6	2.2	1.7	1.9	1.8	2.2
	증가율	-18.4	15.2	12.9	34.4	9.5	3.4
이전소득	금액	44.7	49.5	44.0	45.0	46.8	59.0
	증가율	2.1	5.3	-1.6	1.0	10.1	19.2
처분가능 소득	금액	358.8	-	-	-	-	-
	증가율	0.7	-	-	-	-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55.0	-	-	-	-	-
	증가율	-0.5	-	-	-	-	-
	실질 증가율 ²⁾	-1.5	-	-	-	-	-
흑자액	금액	103.8	-	-	-	-	-
	증가율	3.8	-	-	-	-	-
평균소비성향 ³⁾		71.1	-	-	-	-	-
흑자율 ⁴⁾		28.9	-	-	-	-	-

주: 1) 전년동(분기) 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5)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지출부문은 연간 '가계지출조사'로, 소득부문은 분기 '가계소득동향'으로 각각 작성·공표가 분기 주기 공표에서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됨. 단, 가계소득통계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발표함.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 2018년 1/4분기 경기 선행지수⁵⁶⁾ 및 동행지수⁵⁷⁾ 순환변동치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하며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장단기금리차,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하여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100.6을 기록함
 -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였으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⁵⁸⁾하여 전월 대비 0.3 하락한 100.1을 기록함
 - 5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⁵⁹⁾하여 전월 대비 0.1 하락한 100.0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하락하였으나 건설기성액이 크게 증가하며 전분기보다 0.3 하락한 99.8을 기록함
 - 4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1 하락한 99.7을 기록함
 -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과 같은 99.7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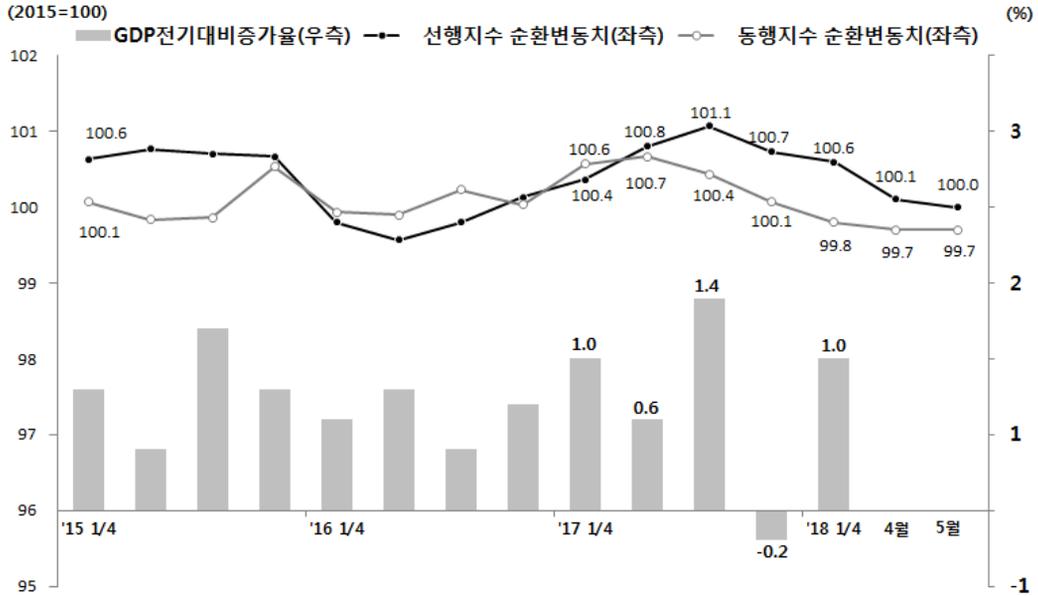
56)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7)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8) 통계청 보도자료(2018. 5. 31),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

59) 통계청 보도자료(2018. 6. 29),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8년 1/4분기,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8년 1/4분기 재고율⁶⁰⁾은 제조업 출하지수 하락, 재고지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5.7%p 상승한 111.6%를 기록함

○ 4월 재고율은 전월 대비 0.5%p 하락한 113.4%를 나타냄

- 4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통신·방송장비, 반도체 등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석유정제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1.6% 상승하였고 재고는 가죽 및 신발, 담배 등이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1.2% 상승함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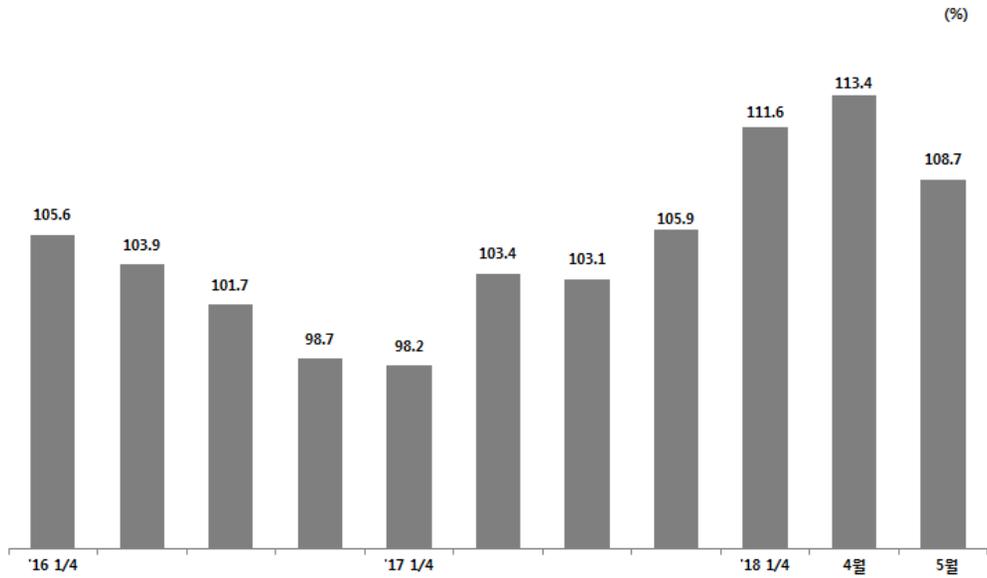
○ 5월 재고율은 전월 대비 4.7%p 하락한 108.7%를 나타냄

- 5월 제조업 출하는 전기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은 감소했으나, 통신·방송장비, 자동차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자동차, 전기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1차 금속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8% 감소함⁶²⁾

60)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 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61) 통계청 보도자료(2018. 5. 31),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

62) 통계청 보도자료(2018. 6. 29),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8년 2/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2.21%, 2.47%, 2.69%로 1/4분기(2.24%, 2.49%, 2.70%)보다 하락함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50%로 동결됨
 - 국고채 금리 하락의 원인은 국내 고용지표 부진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우려 등 때문임
- 2018년 2/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78.6원으로 전분기(1,072.3원) 대비 상승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439.07로 전분기(2,472.91) 대비 하락함
 - 달러화 강세,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임
 -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확대 우려 및 유로지역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종합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임
- 2018년 2/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8,885.45로 전분기(21,023.69) 대비 하락하였고,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1.38, 0.80으로 전분기(12.31, 0.86) 대비 하락함

〈금리〉

- 2018년 2/4분기 정책금리는 1.50%로 동결됨(〈표 33〉 참조)
 - 2018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고용지표 부진과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확대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인 가운데,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경제는 소비와 수출 증가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2/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와 동일한 1.65%임(〈표 33〉 참조)
 - 4, 5, 6월 평균 CD(91일) 금리는 모두 1.65%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8년 2/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하여 각각 2.21%, 2.47%, 2.69%임(〈표 33〉 참조)
 - 4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ECB와 BOJ의 완화기조 지속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2.27%, 2.50%, 2.71%)보다 하락한 2.19%, 2.44%, 2.66%를 기록함
 - 5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국내 기준금리 인상⁶³⁾ 우려 확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4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2.25%, 2.53%, 2.76%를 나타냄
 - 6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 고용지표 부진,⁶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심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3년물 2.18%, 5년물 2.44%, 10년물 2.66%로 하락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2018 2/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25	1.25	1.50	1.50	1.50	-	0.25
CD(91일)	1.40	1.39	1.50	1.65	1.65	-	0.25
국고채(3년)	1.68	1.77	2.10	2.24	2.21	-0.04	0.53
국고채(5년)	1.88	1.97	2.31	2.49	2.47	-0.02	0.59
국고채(10년)	2.20	2.28	2.49	2.70	2.69	-0.01	0.49
회사채(3년, AA-)	2.21	2.31	2.65	2.79	2.82	0.03	0.61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53	0.54	0.55	0.54	0.61	0.07	0.08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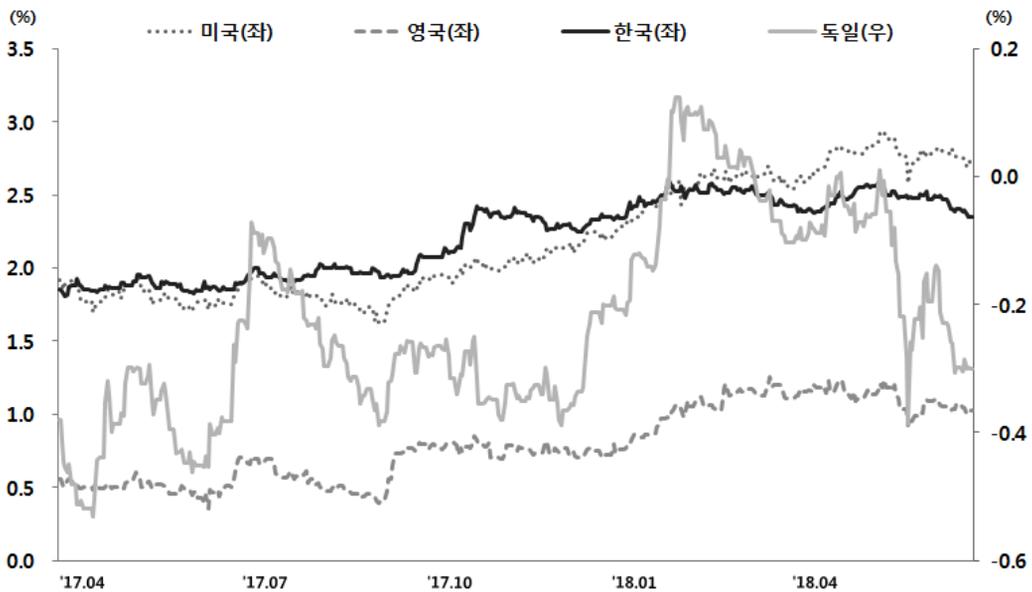
63)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물가전망 하향 조정 및 만장일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개선세 약화 전망 속 정책여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3/4분기 중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확인함. 한편 중립 스탠스를 유지한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의 임기 종료 및 신임 금융통화위원 선출도 금리인상 경계심 부각 요인으로 작용함

64) 취업자 수(전년동기 대비, 월평균, 천 명): ('17년) 316 → ('18. 1Q) 183 → (4월) 123 → (5월) 72

■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확대, 국제유가 상승⁶⁵⁾ 등으로 상승세였지만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통상마찰 심화 우려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하락세를 보임(〈그림 3〉 참조)

- 또한 ECB가 6월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2018년 12월 양적완화 종료와 2019년 여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유럽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함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8년 2/4분기 평균 2.82%로 전분기 대비 3bp 상승함 (〈표 33〉 참조)

- 4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79%, 5월과 6월은 각각 2.86%, 2.81%를 기록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 대비 7bp 확대된 평균 61bp임

65) 브렌트유는 4월 말 배럴당 75.2달러로 연초 대비 12.9% 상승하며,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환율〉

- 2018년 2/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 대비 6.3원 상승한 평균 1,078.6원임(〈표 34〉 참조)
 - 4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배당 관련 외국인 역송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4.1원 하락한 1,067.8원임
 - 5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화 강세 흐름 속에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금융불안 우려 등으로 4월보다 8.6원 상승한 1,076.4원을 기록함
 - 6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신흥국 금융 불안,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EU 난민 갈등 우려 등으로 연중 최고점⁶⁶⁾을 기록한 1,092.8원임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7			2018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원/달러	1,129.4	1,132.2	1,105.7	1,072.3	1,078.6	1,067.8	1,076.4	1,092.8
엔/달러	111.0	111.0	112.9	108.5	109.0	107.5	109.7	110.0
달러/유로	1.101	1.175	1.177	1.228	1.193	1.229	1.182	1.167
위안/달러	6.862	6.671	6.613	6.359	6.379	6.299	6.372	6.467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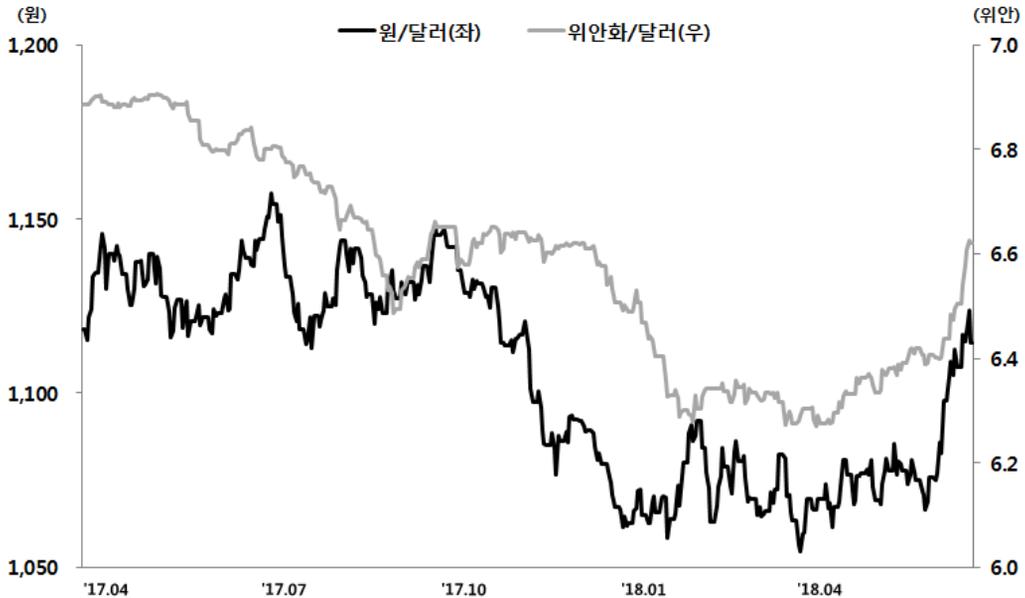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0.02위안 상승한 평균 6.379위안을 기록함
 -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로 달러화가 강세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확대 조짐에 따른 자본 이탈 우려,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⁶⁷⁾ 등으로 위안/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⁶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66) 2018년 6월 29일 1,121.70원을 기록함

67) 중국 인민은행은 6월 들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함

68) 2018년 6월 28일 6.627위안을 기록함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8년 2/4분기 달러화는 엔화, 유로화 모두에 대해 강세를 보임(〈표 34〉 참조)

- 4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일본의 물가상승률⁶⁹⁾ 둔화, BOJ 총재의 통화완화 지속 언급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107.5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로존의 경제 지표 부진,⁷⁰⁾ ECB의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하락하여 1.229달러를 기록함
- 5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이탈리아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109.7엔을,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로존의 경기부진 지속,⁷¹⁾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⁷²⁾ 등의 영향으로 1.182달러로 전월보다 하락함
- 6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 하락 등으로 상승하여 110.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하락한 1.167달러임

69) 일본 3월 CPI +0.9%(YoY)

70) 유로존 3월 CPI는 1.3%(YoY)로 하향조정, 4월 제조업PMI는 56.0으로 하락

71) 유로존 2018년 1/4분기 GDP는 전기 대비 0.4%로, 2017년 4/4분기 0.7% 대비 둔화됨

72) 이탈리아의 총선에서 승리한 '오성운동'이 '동맹'과 연정을 수립하며 재정지출 확대 중심의 정책을 발표하자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17년 GDP 대비 국가부채 131.5%)와 반EU, 반유로존 성향의 파올로 사보나 재무장관을 임명하여 유로존 탈퇴위험이 계속 부각되고 있음

〈주가〉

■ 2018년 2/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472.91보다 하락한 평균 2,439.07임 (〈그림 5〉 참조)

- 4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인한 북한 리스크 완화, 국내 기업 1/4분기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전월 평균주가지수 2,451.57보다 상승한 2,458.22를 나타냄
- 5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461.30으로 북한-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4월에 비해 상승함
- 6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394.51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확대 우려 및 유로지역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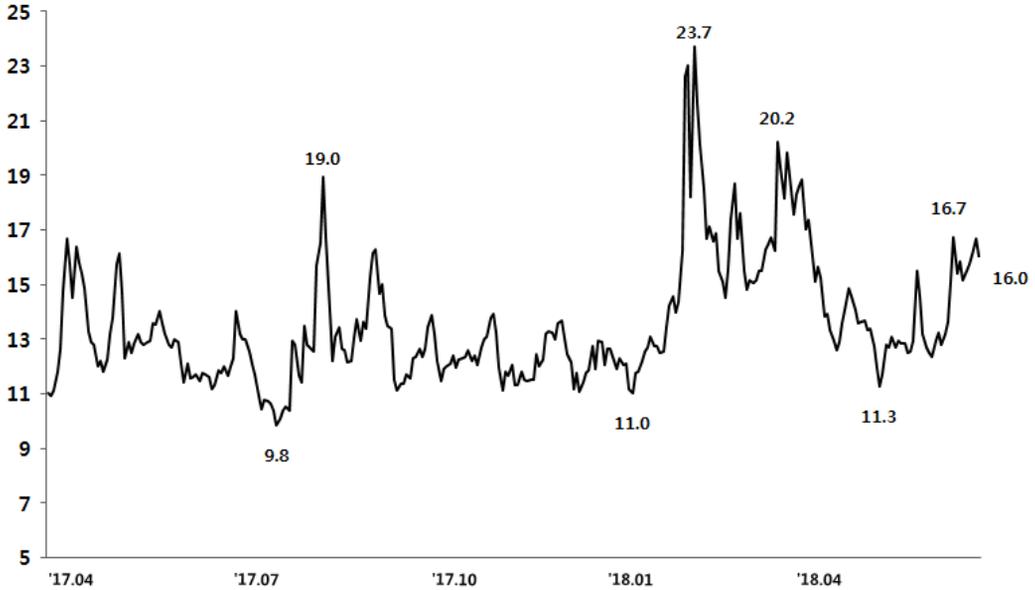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의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 2018년 2/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6〉 참조)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8년 2/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21,023.69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18,885.45임(〈그림 7〉 참조)

- 1/4분기 경영실적 부진, 최근의 금리 하락 및 경쟁 심화에 따른 경영실적 관련 불확실성 확대, 자본 확충의 우려 등으로 보험지수가 하락함

〈그림 7〉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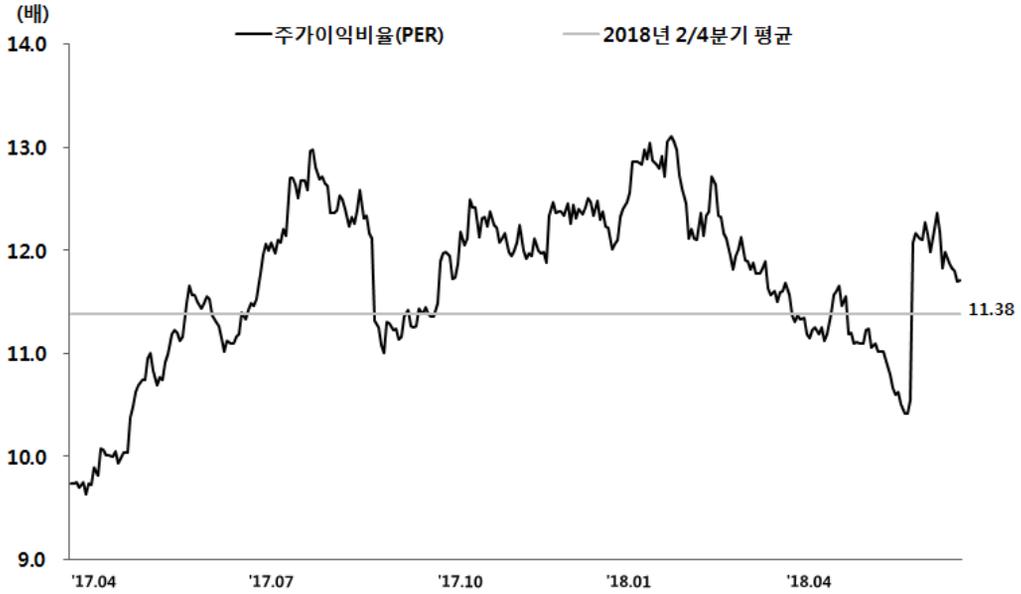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4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8년 2/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1.38, 0.80으로 전분기 평균 12.31, 0.86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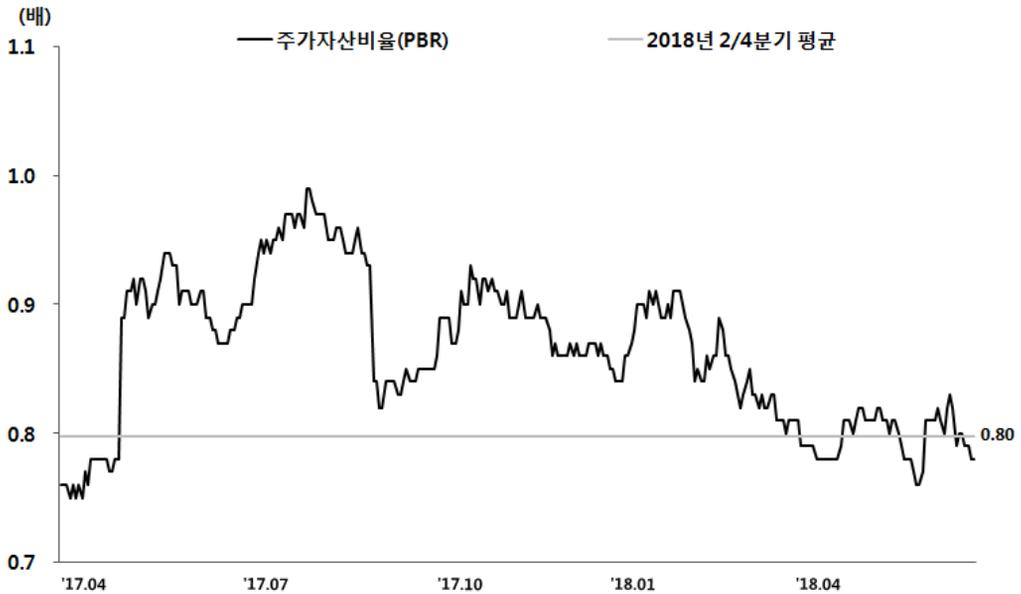
○ 당기순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지수의 하락으로 주가이익비율(PER)은 하락하였으며, 자본의 감소보다 보험지수의 하락이 더 큰 영향을 주어 주가자산비율(PBR)도 하락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8년 2/4분기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8년 2/4분기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